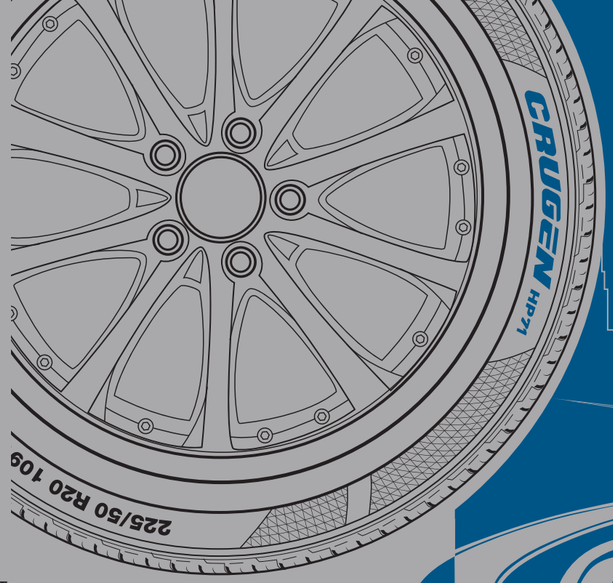
KUMHO TIRE
Better, All-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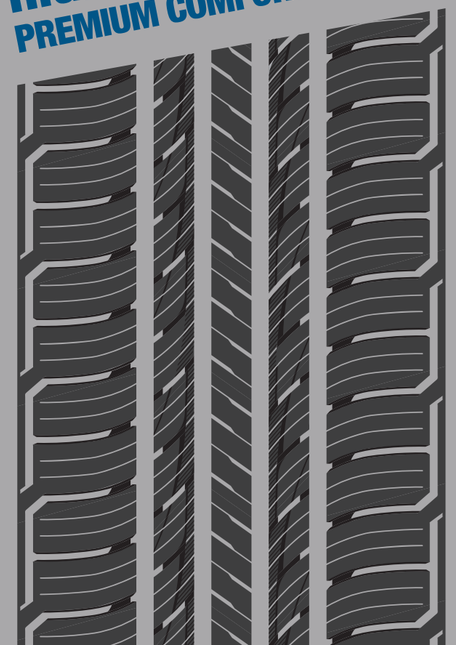
KUMHO TIRE MEMBERSHIP MAGAZINE 2019. NO.2

KUMHO TIRE





HIGH PERFORMANCE
PREMIUM COMFORT SUV TIRE



타이어저널

KUMHO TIRE MEMBERSHIP MAGAZINE
2019. NO. 2

KUMHO TIRE

2019
NO.02

Kumho Tire
MEMBERSHIP MAGAZINE

vol.145

KUMHO TIRE

04 PROLOGUE SUV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다! CRUGEN
06 LINE-UP STORY CRUGEN, 온오프를 동시에 만족
08 TIRE TEST 도심형 SUV의 프리미엄 컴포트란 바로 이런 것! CRUGEN HP71
32 MOTORSPORTS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TRAVEL & CAR

14 BYPASS 싱그러운 녹음의 터널을 내달리다, 칠갑산 한티고개
20 REST AREA 시화나래휴게소, 바다 한가운데에 휴게소가 있다?

CAMPAIGN & CAR

22 CULTURAL TOUR '속도와 규칙의 조화'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
24 CAR TREND 카셰어링의 미래
28 CAR DISSECTION '크로스오버'의 정석, 볼보 신형 V60 크로스컨트리
30 KT TIPs 타이어 관리를 위한 3가지 TIPs!

TIRE PRO & NEWS

38 RETAIL SHOP1 26년 영업 노하우로 고객 감동, 타이어프로 대전점
40 RETAIL SHOP2 금호타이어와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타이어프로 진해구청점
42 KUMHO TIRE NEWS 금호타이어, 신규 기업브랜드 TV 광고 런칭
44 HOT ISSUE '엑스타 TV' 유튜브 채널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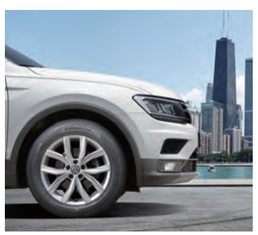
KTS JOURNAL

46 KTS SHOP 40년 동안 다져진 단단한 신뢰, KTS 대전점
48 KTS LINE-UP CARGO & DUMP
50 KTS NEWS 트럭·버스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금호타이어 사외보 타이어저널
2019년 No.2 통권 145호
등록번호 서초 바00147호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박성호
발행처 아우토반 디자인하우스
진행 금호타이어 마케팅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기획 및 제작 (주)아우토반 디자인하우스
전화 02-6303-8259
이메일 smkang@kumhotire.com
인터넷 www.kumhotire.co.kr
웹진 tirejournal.kumhotire.co.kr
정가 5,000원
사서함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제1427호
금호타이어 마케팅팀

타이어저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타이어저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6


08

14

20

24

32

42


44


CRUGEN

SUV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다!

이제 SUV라고 불리던 차종의 성격을
한 가지로 특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때로는 더없이 편안하고 정숙하며,
때때로 거친 야성미를 드러내다가도,
심지어 기막힌 고속주행성능을 봄내기 때문이다.

**SUV의 스펙트럼을 끝없이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루젠이 등장한 이유다.**

글. 서동철 일러스트. 이혜현



온·오프를 동시에 만족 CRUGEN SUV의 다양성을 확장하다



'도심형 SUV(Sport Utility Vehicle)'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SUV가 거친 오프로드를 벗어나 매끈한 온로드로, 세련된 도심으로 올라온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크루젠은 이러한 자동차 트렌드에 발맞춘 브랜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마음껏 누비며 도심형 SUV 타이어의 대명사가 된 크루젠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자.

STORY 01

도시에서 더욱 빛나는 크루젠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도심형 SUV의 인기는 날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 SUV의 시장은 2011년대 20만대 수준에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내수 점유율 35%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자동차등록 데이터를 보면 총 신차 등록 대수 156만5328대(버스, 트럭, 특장 제외) 가운데 세단이 68만7966대, SUV는 55만7497대다. 여전히 세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단이 전년 대비 6.1% 감소한 반면 SUV는 9.3% 증가했다. 오랜 세월 공고했던 세단의 자리를 넘보는 SUV의 중심에는 도심형 SUV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크루젠은 이러한 도심형 SUV의 탄생과 성장에 발맞춘 브랜드이다. 크루젠(CRUGEN)이란 이름 역시 'Cruise'와 'Generation'의 합성어로 대형 크루즈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뜻한다. SUV 타이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크루젠 프리미엄. 승차감과 정숙성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품이다. 이어서 등판한 것은 스포츠카에 견줄 만한 하이퍼포먼스 SUV를 위한 타이어인 크루젠 HP91이다. 안정적인 고속주행과 민첩한 핸들링 성능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가장 최근 모습을 드러낸 크루젠 HP71은 프리미엄 컴포트를 내세우며 세단과도 같은 편안함과 정숙성을 추구하는 SUV 오너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명차의 선택으로 확인된 고품질

크루젠 시리즈의 뛰어난 성능은 명차들의 OE(Original Equipment: 신차용 타이어) 공급으로도 확인된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것은 BMW 뉴 X3에 크루젠 HP91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BMW X3는 SAV(Sport Activity Vehicle)라는 특유의 정체성을 갖춘 차종으로 금호타이어의 고성능 SUV용 스포츠 타이어인 크루젠 HP91과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크루젠 HP91의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 핸들링, 제동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 폭스바겐의 대형 SUV인 아틀라스(2018년형)는 크루젠 프리미엄을 선택했다. 7인승 풀사이즈 도심형 SUV는 가족들의 일상과 레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법. 세단에 버금가는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갖춘 크루젠 프리미엄은 아틀라스의 성능과 놀

STORY 02



세련미로 시선을 붙잡다

크루젠 디자인의 매력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세련미'일 것이다. 투박하고 각진 디자인 일색이었던 SUV가 세단이나 스포츠카의 날렵하고 매끈한 디자인을 빌려온 것처럼, 타이어의 디자인 역시 도시적인 세련미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크루젠 프리미엄은 심플하면서도 명쾌한 사이드월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금호타이어 영문 로고와 타이어 명칭이 대칭을 이룬 가운데, 굵직한 붓으로 그린 듯한 두 개의 면이 사이드월을 메우고 있다. 그 양 끝단에는 사각형 모양의 작은 면들이 크기를 달리하며 새겨져 있어 멋스럽다. 반면 크루젠 HP71은 도시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이드월에 적용된 홀로그램 기법 덕분인데, 서로 다른 문양의 작은 삼각형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반짝이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크루젠 HP91은 최상급 스포츠 모델인 만큼 역동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삼분할된 사이드월의 각 꼭짓점에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큼직한 사각형 문양들에서는 넘치는 힘이 느껴지고, 금호타이어의 특수 음영 효과인 섀도우 널링(Shadow Knurling) 기법을 활용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은근하게 그려내면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해준다.

STORY 03



GOOD DESIGN AWARD 2017

reddot award 2017 winner

이러한 크루젠의 디자인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한 바 있다. 크루젠 HP91은 2015년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특히 크루젠 HP71은 출시하자마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17)'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17)'에서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글. 서동철 사진. 조승민(land)

The Best Choice for Comfort SUV Driving

도심형 SUV의 프리미엄 컴포트란 바로 이런 것!

CRUGEN HP71

도심형 SUV는 타이어도 '도심형'이어야 한다. 세단보다 높은 무게중심과 무거운 중량을 지탱해야 하는 동시에, 세단처럼 조용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다. SUV에게 프리미엄 컴포트를 가능하게 하는 타이어. 바로 크루젠 HP71이다.







Design

타이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월(sidewall)에 적용된 프리미엄 홀로그램 기법은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봄낸다. 이 기법은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것으로 굵은 줄무늬, 얇은 줄무늬, 민무늬 등 서로 다른 문양을 품은 작은 삼각형들이 촘촘하게 모여 굵은 띠를 이루고 있어 독특하다.

홀로그램 기법 통한 세련미 봄내

크루젠 HP71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는 SUV 운전자들을 위해 태어난 제품이다. 때문에 디자인 역시 전통적인 SUV 전용 타이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적인 세련미로 가득하다. 특히 타이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월(sidewall)에 적용된 프리미엄 홀로그램 기법은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봄낸다. 이 기법은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것으로 굵은 줄무늬, 얇은 줄무늬, 민무늬 등 서로 다른 문양을 품은 작은 삼각형들이 촘촘하게 모여 굵은 띠를 이루고 있어 독특하다. 이 삼각형들은 보는 각도나 타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면서 우아하게 반짝인다. 여느 타이어와는 달리 '눈부신'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세련됨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2017년 크루젠 HP71이 출시되자마자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고, 연이어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를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한 이유다.



Birth

이번에 소개할 크루젠 HP71은 두 제품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프리미엄 컴포트'를 내세우며 정숙성과 승차감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고속주행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단의 정숙성과 편안함을 넘보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누가 뭐라 해도 '도심형 SUV(Sport Utility Vehicle)'이다. 세단이나 쿠페 나아가 스포츠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SUV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아웃도어 활동이나 일상에서의 높은 공간 활용성 등 기존 SUV의 특징은 유지하면서도,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성과 뛰어난 핸들링 성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심형 SUV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카에 견줄 만한 하이퍼포먼스 SUV와 세단을 방불케 하는 컴포트 SUV가 바로 그것이다. 도심형 SUV를 위해 태어난 금호타이어의 크루젠(CRUGEN) 역시 이러한 추세에 따라 라인업이 구성된다. 합리적인 가격의 크루젠 프리미엄은 편안한 승차감, 정숙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크루젠 HP91은 크루젠의 최상위 라인업으로 고속주행 안정성과 핸들링 성능을 극대화해 스포츠형 고성능 SUV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이번에 소개할 크루젠 HP71은 두 제품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프리미엄 컴포트'를 내세우며 정숙성과 승차감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고속주행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Driving

고속도로로 올라서니 티구안이 도심형 SUV다운 가속력을 봄 낸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고속주행 중 노면에서 타이어를 타고 전해지기 마련인 소음이나 흔들림은 꽤 억제되어 있었다. '프리미엄 컴포트'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SUV에서 누리는 최상의 승차감

크루젠 HP71(235/55R18)의 테스트를 위해 짝을 이룬 차량은 폭스바겐의 2세대 티구안 2.0TDI이다. 지난 2007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티구안은 최근 누적 생산량 50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굵고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남성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아름다움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특징. 화려하진 않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차려 입은 독일 신사 같다고나 할까? 이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크루젠 HP71의 디자인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4.7㎏·m의 2.0TDI 엔진의 시동을 걸고 시내로 나섰다.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도심을 벗어나는 일은 언제나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법.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끼어드는 차량으로 급제동을 하기도 했으며, 막히는 메인 도로를 피해 골목길을 지날 때에는 수시로 과속방지턱을 넘어야 했다.

그런데 크루젠 HP71을 장착한 티구안은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감을 자랑하며 피로감보다는 여유를 선사한다. 디젤 엔진임에도 차량의 떨림과 소음은 상당히 억제되어 있었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변속은 매력적이었다. 빈번하게 시동이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하는 스탑앤고 시스템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노면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소프트 콘셉트의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한 크루젠 HP71은 이러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한층 배가시켜주고, 트레드의 블록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피치(동일한 타이어의 패턴 간격)의 저소음 설계로 스피커로 음악을 즐기는 데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다.

고속도로로 올라서니 티구안이 도심형 SUV다운 가속력을 봄 낸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고속주행 중 노면에서 타이어를 타고 전해지기 마련인 소음이나 흔들림은 꽤 억제되어 있었다. '프리미엄 컴포트'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민첩한 핸들링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법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코너링을 하는데 사이드월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이 차체의 균형을 통해 느껴진다.

크루젠 HP71은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지난해 총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5% 이상 증가해 금호타이어의 인기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SUV 차량 유형별로 최적화된 성능도 인기의 비결이다. 도심형 CUV 차량 규격은 컴포트 성능과 소음 분산 기술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고성능 SUV 규격에는 핸들링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고하중 SUV 규격에는 내구력을 최적화한 것이다. 또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해 다양한 노면에서도 완벽한 제동성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마모성능은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저온특성 향상 고무를 사용해 윈터 성능까지 기존 제품 대비 30% 이상 향상시켰으니 겨울철에도 든든하다.





CRUGEN HP71

크루젠 HP71 디자인 & 적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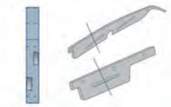
A
저소음 패턴 설계로 정숙성 향상
- 5개 가변 피치 적용과 접지형상을 고려한 그루브 앵글 적용으로 저소음 성능 강화



B
신구조 설계로 승차감 업그레이드
- 고강성 벨트 패키지 적용으로 균일 접지압 분포 벨트 각도 최적화

C
도심형 CUV 최적화 설계
- 피치수 증가를 통한 컴포트 성능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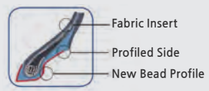
C
고성능/고하중 SUV 최적화 설계
- 입체 사이프 적용 및 블록 강성 설계로 핸들링, 내구력 최적화



D
프리미엄 사이드월 디자인
- SUV의 품격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홀로그램 기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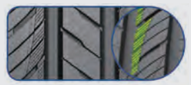


E
비드부 강화 신기술 적용
- 비드부 신기술 적용으로 내구성능 향상 및 주행안정성 강화 SUV 전용 신규 비드 적용으로 사용기간 내내 최적 성능 유지



※ 비드부 강화 신기술 적용은 규격별 상이

F
주행안정성 향상 설계
- 지그재그 센터 리브 및 미세 사이프 적용으로 직진 주행 안정성 확보 및 수막현상 제거



G
배수 성능 강화 와이드 그루브 설계

칠갑산 한티고개
싱그러운 녹음의 터널을 내달리다

빠르고 편리한 터널을 앞에 두고 거친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마주 오는 차량이 부담스러울 만큼 비좁았고, 쉴 틈 없이 구불구불 휘어지며 혼을 쏙 빼놓는다. 그런데 좋다. 하늘을 다 가릴 만큼의 짙은 녹음, 한적한 옛길의 고즈넉함, 차창을 넘어 들어오는 깨끗한 공기. 좋지 아니한가?

글. 서동철 사진. 김남현<STUDIO b612>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드라이브

청양군에 자리한 칠갑산은 애잔하다. 가수 주병선이 부른 <칠갑산>이란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다. 홀어머니를 두고 시집가는 딸의 무거운 발걸음과 홀로 남아 콩밭 매는 어머니의 눈물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 하지만 칠갑산은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며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산의 높이는 561m에 불과하지만 산세가 아름다워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대웅전을 보유한 장곡사를 비롯해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칠갑산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산자락 남쪽의 장곡사 벚꽃길이다. 장곡사 삼거리에서 36번국도와 만나는 주정교삼거리까지 5.7km의 길로 봄철이면 벚꽃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룬다. 장평면 지천리의 나선형도로도 100선에 꼽혔다. 이름 그대로 나선형으로 휘어지며 표고차가 큰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길인데,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친환경적인 공법이란다.

이번에 찾아간 길은 칠갑산의 북쪽 사면을 넘는 한티고개길. 1983년 대치터널이 뚫리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길이다. 청양 읍내에서 칠갑저수지를 지나 칠갑산로를 달린다. 조금씩 산이 깊어진다고 느껴질 무렵, 매끈한 도로를 버리고 가파르고 구불텅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대치면 대치리에서 시작해 휴게소인 칠갑광장을 지나 정산면 마치리까지 이어지는 약 3.6km의 길인데 짧다고 무시하기엔 이르다. 길은 마주 오는 차를 만나면 난감할 만큼 조붓하고, 쉼 없이 구불거리는 탓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순우리말로 큰 고개를 뜻하는 '한티'라는 이름처럼, 길은 꽤 험준한 고갯마루를 힘겹게 넘는다.

그런데 35년 간 버려지다시피 함으로써 한티고개길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했다.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깊은 숲의 터널을 이루고, 찾는 이가 드물어 한적하기 이를 데 없다. 등산로의 일부이기도 해서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이채로운 풍경도 마주할 수 있다. 일부러 빠른 길을 버리고 찾아오는 이들만의 여유로운 드라이브가 가능한 것이다. 대치터널 위에 자리한 칠갑광장에 잠시 차를 세우고 면암 최익현 선생의 동상을 둘러보며 항일정신을 되새기는 것도,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 전망대에서 칠갑산의 멋진 산세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한티고개 드라이브 추천 코스

'한티고개길'는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77-5와 정산면 마치리 538-5를 연결하는 약 3.6km의 길이다. 천장호에서 시작해 마치리 538-5에서 우회전하면 한티고개길이 시작된다. 이후 칠갑광장,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 등을 들려 칠갑저수지를 지나 청양 읍내로 향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역순으로 청양 읍내에서 시작해도 좋다.

START!

관람요금 무료
주소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4-23
문의 천장호출렁다리 관리사무소 041-940-2723



SPOT 01



물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_천장호 출렁다리

칠갑산과 함께 청양의 대표적인 명물을 꼽으라면 단연 천장호 출렁다리일 것이다. 지난 2009년 개통해 총 길이 207m로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 기록을 지니고 있던 다리이다. 상하좌우로 30~40cm 정도 흔들리도록 설계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짜릿하고, 수면과의 거리가 짧아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다리 중간에 세운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와 고추를 형상화한 높이 16m의 탑은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지만,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지는 풍경은 일품이다. 주차장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콩밭 매는 아낙네상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끌고, 다리를 건너면 호숫가를 따라 나무데크로 산책로를 마련해두어 잠시 걷기에도 좋다. 산책을 즐기다보면 제법 큰 용과 호랑이 조각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 얽힌 전설 때문이다. 천년의 세월을 기다려 승천하려던 황룡이 자신의 몸을 바쳐 다리를 만들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이를 지켜보던 호랑이는 영물이 되어 칠갑산을 수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SPO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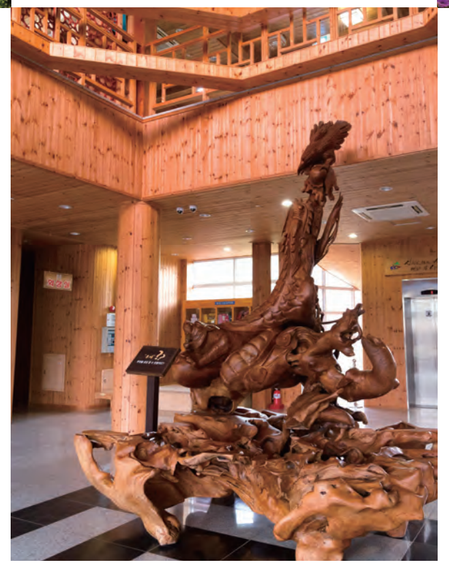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다_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

한티고개길 중간 지점에 자리한 칠갑광장에 차를 세우고 꼭 들러야 할 곳은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이다. 느긋한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널찍한 숲길을 걸으면 산 중턱에 자리한 천문대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천문대라고 해서 반드시 밤에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낮에는 주관측실에 설치된, 시민 천문대로서는 국내 최대 구경급인 304mm 굴절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은 날 밤이라면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에서 행성, 성운, 성단 등 밤하늘의 천체를 관찰할 수 있다. 시청각실에서 3D 영화를 상영하거나 천문과학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며, 둥근 돔 모양의 천체투영실에서는 가상의 별자리, 오로라 등 천체 관련 영상을 고화질 레이저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다. 주간과 야간,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입장 시간, 최대 인원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람요금 성인(만 19세 이상) 3,000원, 중고생(만 13~18세) 2,000원,
초등학생(만 7~12세) 1,000원
관람시간 하절기(4~10월) 10:00~22:00, 동절기(11~3월) 10:00~21:00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 연휴
주소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
문의 041-940-2790, star.cheongyang.go.kr











관람요금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만 48개월 이상) 1,000원
관람시간 하절기(3~10월) 09:00~18:00, 동절기(11~2월) 09: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주소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1
문의 041-940-2844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하다_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아이들과 함께 청양군을 찾았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다. 칠갑저수지에 자리한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은 2010년 목재 체험관으로 시작해 최근 자연사 체험관이 더해지면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목재문화 체험관에서는 나무의 나이테부터 시작해 나무와 임업 전반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으며, 2층으로 올라가면 나무 공작소 및 놀이터가 나오는데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나무 미끄럼틀, 주방 놀이 등 모두 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어 아이들 정서발달에도 좋다. 자연사 체험관으로 넘어가면 호랑이, 늑대, 곰, 악어 등 박제가 생생한 느낌을 주고, 닥터피쉬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관 뒤쪽의 농부마켓과 농부밥상도 들려보자. 농부마켓에서는 구기자, 고춧잎 등 청양의 로컬푸드를 구입할 수 있으며, 농부밥상에서 한돈 청양고추 떡갈비 밥상(1만3,900원) 등 청양의 특산물로 차려낸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좋다.

SPOT 03

영업시간 10:00~20:00
주요메뉴 구기자 청국장백반 7,000원, 뚝배기비빔밥 7,000원,
바닷물손두부 1만5,000원, 바닷물손두부(반) 8,000원,
도토리묵 8,000원, 삼겹살수육 2만 원
주소 청양군 대치면 한티고개길 1
문의 041-943-6617

구수하고 건강한 한 끼_바닷물손두부

구기자가 들어간 청국장과 간수 대신 바닷물을 사용해 강릉 초당두부 식으로 만든 손두부로 청양군에서 유명한 맛집이다. 먼저 다양한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운다. 어리굴젓, 묵무침, 파김치 등 약 10가지의 반찬들은 하나같이 맛깔스럽다. 곧이어 등장한 손두부는 삼색의 빛깔을 뽐낸다. 일반 콩으로 만든 것, 구기자를 넣은 것, 서리태를 넣은 것으로 함께 나온 삼겹살 수육에 묵은지 등을 얹어 먹으면 손두부 특유의 고소함이 입 안 가득 퍼진다. 구기자가 들어간 청국장은 향이 그리 강하지 않으면서도 진하다. 느타리버섯, 대파, 두부 등을 함께 건져 밥에 올리고 쓱쓱 비벼 먹으니 이번에는 진득한 구수함이 혀를 감동시킨다. 쌈채소에 밥을 얹고 청양고추가 통째로 들어간 이 집의 특제 쌈장을 넣어 먹어도 좋다.

SPOT 04







입장요금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이용요금 숲속의집 6만~14만4,000원(성수기 7만5,000~18만원),
산림문화휴양관 6만~20만 원(성수기 7만5,000~25만 원),
원두막 3만 원, 야영 데크 2만5,000원(당일 1만 원)
주소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문의 041-940-2428, chilgap.cheongyang.go.kr



울창한 천연림 속 하룻밤_칠갑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을 지나 칠갑대교를 건너 좌회전하면 갑작스레 깊은 숲 속으로 접어든다. 그 길 끝에 자리한 것은 칠갑산자연휴양림. 1996년에 개장해 벌써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자연 그대로의 숲을 유지하고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정문을 통과해 산림문화휴양관을 지나면 계곡물을 따라 높다란 메타세쿼이아가 도열해 있어 장관이고, 야트막한 언덕 위에 올라앉은 통나무집들은 며칠이고 눌러앉고 싶을 만큼 아기자기하다. 캠핑도 할 수 있다. 야영장 데크 간격이 다소 좁은 것이 흠이지만, 모두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더운 날씨에도 캠핑하기에 좋다. 통나무집 12동, 산림문화휴양관 3동 24실, 야영장 데크 20개, 원두막 4동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며, 야영장 위쪽에는 물놀이장이 있어 여름철 방문하면 시원한 계곡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빵에 청양의 맛을 담다_농가의빵집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점령한 시대에 동네 빵집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양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한 농가의빵집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갖가지 빵들이 가득히 진열돼 있고, 빵 굽는 냄새가 침샘을 자극한다. 매대 주위로는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 임명장 등 다양한 상장, 메달, 위촉장, 임명장이 즐비하다. 빵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농가의빵집이란 이름답게 지역 특산품인 구기자를 발효종으로 활용한 구기자 천연발효빵이 이 집의 대표 메뉴. 살짝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느껴지는데, 맛과 향이 강하지 않고 은근해 자꾸만 손이 간다. 이 빵은 '2015 코리아푸드트렌드페어' 제과제빵부문 금상을 수상했을 만큼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은 바 있다. 청양고추두부스낵도 유명하다. 청양고추가 들어갔다고 맵지는 않고 달짝지근하니 간식으로 좋다.



영업시간 10:00~20:00
주요메뉴 구기자 천연발효빵 3,800원, 청양고추두부스낵 3,000원 등
주소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0
문의 041-944-0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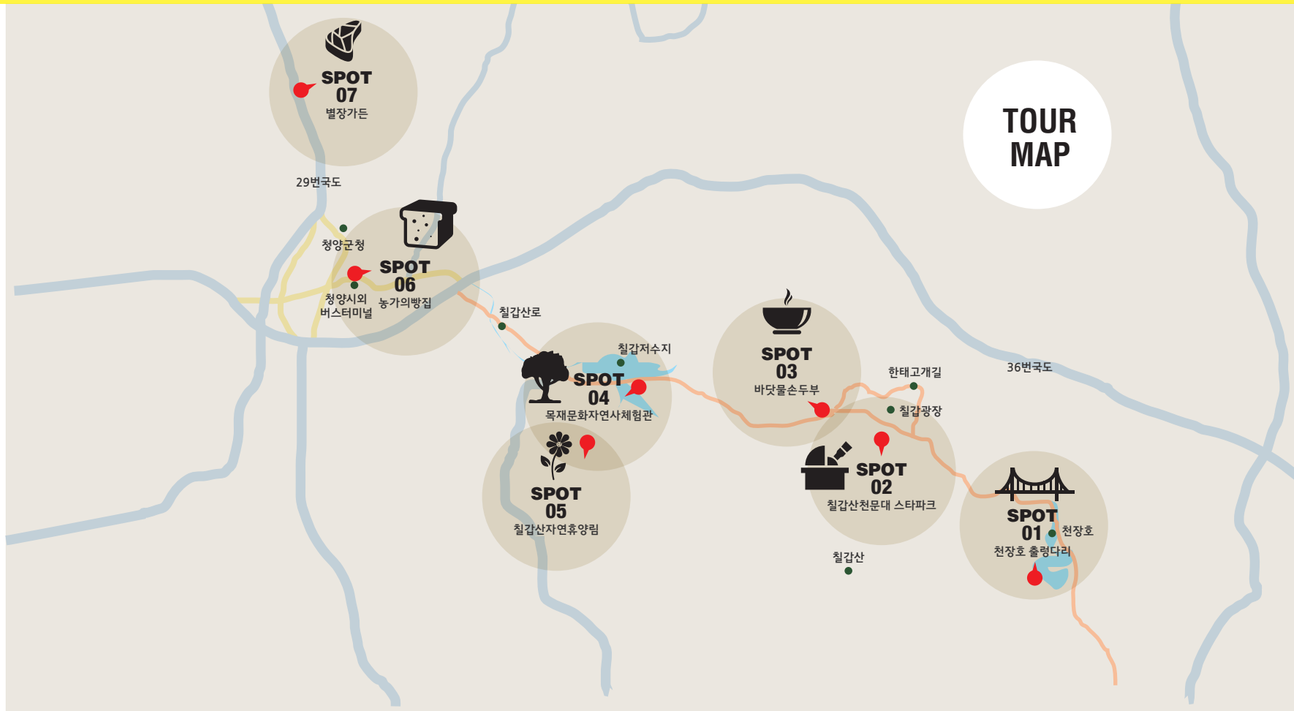




왕갈비와 구기자의 만남_별장가든

청양 읍내에서 북쪽의 홍성군으로 이어지는 충절로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음식점이다. 읍내에서 한참 벗어난 국도변이어서 도무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위치이지만 주차장엔 이미 차들로 가득하다. 이쯤 되면 맛은 보장된 셈이다. 별장가든이라는 이름처럼 널찍한 앞마당은 고급 별장의 정원처럼 잘 꾸며져 있어 눈이 먼저 즐겁다. 자리에 앉아 주문한 것은 별장가든의 대표메뉴 가운데 하나인 구기자 대왕갈비탕. 넓적한 솥에 커다란 갈비와 함께 대파, 인삼, 고추, 대추, 당면 등이 들어가 있고, 붉은 빛깔의 구기자가 이곳이 청양의 맛집임을 일러준다. 어른 손바닥만 한 갈비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 맛인데, 생각보다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하다. 국물 또한 진하고 깊어 밥을 말아 먹기에 그만이다. 구기자 갈비정식도 인기다. 홍어찜, 생선구이, 도토리묵, 우렁초무침, 메밀전, 육회 등 한정식에 버금가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지고, 구기자갈비전골이 식탁 한가운데를 장식한다. 구기자를 비롯해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인삼, 은행, 양파, 대추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여내는 전골의 감칠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영업시간 11:00~22:00
주요메뉴 구기자 갈비정식 2만5,000~3만 원, 구기자 한우불고기정식 1만7,000원,
구기자 대왕갈비탕 1만1,000원, 구기자 매운갈비탕 1만2,000원
주소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494
문의 041-942-3312



글·사진 김정훈 여행작가

시화나래휴게소
바다 한가운데에 휴게소가 있다?

서해를 가로지르는 11km 길이의 도로. 그 위에 휴게소가 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휴게소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서부의 나들이 명소이자 드라이브 코스, 대부도로 가는 관문에 자리한 시화나래휴게소다.

something special 1 바다를 가로지르다



오이도 입구와 대부도를 연결하는 11km 상당의 방조제 길은 말 그대로 바다를 가로지른다. 한쪽으로는 시화호의 풍경이, 다른 한쪽으로는 서해와 송도, 인천신항의 모습이 달리는 내내 이어지니 말이다. 그저 빠르게 달리기만 하려는 이들을 위한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보자. 쭉 뻗은 길이 당신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선사할 거다.

something special 2 파노라마로 즐기는 바다



공원 한쪽에 우뚝 솟은 구조물이 바로 달전망대다. 2014년 6월 개장한 이 전망대는 시화방조제의 랜드마크. 무려 75m, 아파트로 따지면 약 25층 높이를 자랑하는 이 전망대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3초. 전망 층 어디에서든 시화호와 서해를 한눈에 조망하게끔 만들어 둔 것이 인상적이다. 일부 구간은 유리 바닥을 설치해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쪽에서 운영 중인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something special 3 낭만이 있는 저녁 식사



달전망대의 1층과 2층에서는 오션뷰를 자랑하는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1층 야외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이닝 카페 '달'은 수제버거를 전문으로 한다. 두꺼운 패티에 달콤한 소스, 고소한 빵이 어우러지는 달버거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조금 더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2층에 있는 'A One 스테이크 하우스'를 찾아보자. 바다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스테이크와 파스타 등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Info

시화나래휴게소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01
문의 032-880-7000~1

시화나래 조력문화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문의 032-885-7530~1
관람시간 3~11월 09:30~17:30 / 12~2월 09:30~17:00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관람요금 무료

달전망대
이용시간 10:00~22:00
문의 032-889-3365

특별함으로 가득한 바다 위 휴게소

안산 대부도로 떠나는 길은 탁 트인 드라이브 코스와 함께다. 시원하게 이어지는 11km 길이의 방조제가 그 주인공. 1985년 간척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경기도 부천시의 면적보다도 큰 호수만을 남긴 채 바다와의 경계선으로 남은 시화방조제는 여전히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전기 생산량이 무려 552GWh에 달하는데, 이는 소양강댐의 1.56배에 이른단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도시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문화·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시화나래조력공원'이 그곳이다. 조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토사를 활용해 부지를 만들고, 그 위를 해상공원으로 꾸몄다. 650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공원 내에는 조력문화관과 달전망대 그리고 시화방조제를 오가는 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휴게소를 운영한다. 야외 조각공원을 따라 잠시 거닐어볼 수도, 탁 트인 바다를 마주 보며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대부도로 나들이를 떠날 요량이라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아니다. 이곳만을 위해 운전대를 잡아도 꽤 괜찮겠다.

something special 4 그래서 조력발전이 뭐야?



달전망대 옆으로는 조력문화관이 자리한다. 달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석 현상 덕분에 가능한 조력 발전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 이 문화관의 주된 내용. 시화호의 역사와 함께 청정에너지의 잠재력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평일에는 하루 전까지 예약한 방문객에 한해 문화안내사의 설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다면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해두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클영상관과 어린이에너지놀이방도 운영한다.

something special 5 바다를 곁에 두고



시화나래휴게소와 조력문화관 사이에 산책로가 이어진다. 바다를 곁에 두고 거닐어보자. 공원 내 대표 작품인 '빛의 오벨리스크'를 비롯해 곳곳에 갖가지 조형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머리 위를 노니는 갈매기들의 춤사위도 그저 재미있다. 이따금 저 멀리서 일렁이는 파도가 감성을 자극하기도. 어디에서든 서해의 반짝이는 바다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시화나래 조력공원이 가진 매력 중 하나다.

something special 6 노을과 야경을 한번에



시화나래휴게소는 노을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며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는 순간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달전망대, 휴게소 내 카페, 공원 친수 공간 등등 시화나래 조력공원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야경 역시 그냥 놓치기에는 아쉽다. 바다 건너 인천신항과 송도의 불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모습, 달전망대의 기둥 부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미디어파사드도 볼 만하다.

교통문화 선진국 탐방기

‘속도와 규칙의 조화’ 아우토반의 나라

GERMANY



독일 도로는 아우토반으로 상징된다. 공공도로 중 유일하게 속도 제한이 없는데 전체 구간의 약 절반 이상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다. 이런 도로 덕에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졌다. 잘 달리고 잘 멈추는 그런 자동차의 기본이 아우토반을 통해 다져졌다 볼 수 있다.

철저한 규칙 준수를 통한 안전

시속 200km/h를 넘나드는 운전이 잦은 아우토반에서 사고는 얼마나 날까? 예상과 달리 최고제한속도 100km/h 구간인 국도, 또 제한속도 50km/h인 도시에서보다 사고가 적고 인명 피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처럼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규칙에 따른, 약속된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아우토반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사용한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나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다.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그런데 이런 규칙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문제는 1차로를 주행차로로 알고 달리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우토반의 특징이라면 오른쪽으로 추월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른쪽 끝 차로가 기본 주행 차로이고, 추월할 때는 왼쪽 차로로 단계별로 변경한다. 결국 주행 속도는 1차로 〉 2차로 〉 3차로 순이 된다. 오른쪽 추월이 없으니 어느 쪽에서 추월 차가 나타날지 덜 신경 써도 된다. 앞질러 가고 싶을 때는 왼쪽 차로를 이용하고, 오른쪽 차로가 비었다면 그곳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잘 만들어진 태엽 장치처럼 도로 위의 자동차는 이 규칙 안에서 쾌적한 흐름을 유지한다.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은 독일의 자동차 문화와 산업을 상징한다. 시속 200km/h를 넘나들지만 다른 도로에 비해 안전하다.



필자 소개
이완 자동차 칼럼니스트
독일에서 유럽의 자동차 문화 및 자동차 업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블로그 ‘스케치북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 다음 자동차와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 등에 칼럼을 연재 중이다. 자동차를 통해 독일을 바라보는 책 〈스케치북 다이어리의 할로 아우토반〉을 집필했다.

공부하고 연습해야 면허 취득

독일은 아우토반과 함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빼놓고 자동차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면허 취득 과정은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론 교육은 철저하게 진행한다. 시험 난도가 높아 잘못하면 두 문제 틀리고 탈락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충 또는 벼락치기식 공부로는 통과가 쉽지 않다. 이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주행 연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엔진룸의 기본 구조를 익히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방법 등 자동차를 이해하는 과정이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야 주행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운전이 몸에 익게 되면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야간 운전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시간만 실습하고 시험을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추가 연습을 하게 된다. 운전학원 강사가 충분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깐깐한 교육 때문에 ‘빨리 빨리’는 안 통한다.

철저하게 면허 취득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도로에서는 규칙에 따라 약속된 운전을 하는 독일인들.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고 빠른 이들의 운전에 당황할 때도 있다. 하지만 법규 안에서 운전을 하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도로는 쾌적하게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규칙을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규칙대로 운전하면 된다. 아우토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글. 우중국 자동차 칼럼니스트



Future of Car Sharing

카셰어링의 미래

하루 24시간 중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출퇴근 2시간, 주말 나들이 5시간을 가정하면 평균 사용시간은 12%에 불과하다. 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면 구매비의 12%만 부담하면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카셰어링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스마트폰으로 차를 나누는 세상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는 획기적인 카셰어링 기술을 선보였다. 등록된 차량 소유자 외에 추가 3명까지 총 4명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현대 디지털키'가 바로 그것이다. "열쇠를 4개 맞춰 나눠 가진 것과 무슨 차이지?"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차량 공유자를 원하는 때에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열쇠를 보내기 때문이다. 사용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다. 결혼 기념 20주년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부모가 자식에게 디지털키를 줄 때 야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현대차 광고에는 이별을 맞은 남자가 전 여자친구의 디지털키를 정지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둘째는 사용자별 운행 조건을 기억했다 재현해준다는 점이다. 시트 위치와 각도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목적지, 오디오 재생 리스트와 볼륨 등을 특정 사용자가 마지막에 썼던 그대로 재현해준다. 기존 차들은 앞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가 탑승 시 차량을 운전자에 맞게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과 자동차가 만나 하나의 차를 완벽하게 자기 차처럼 4명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넷플릭스가 사용자를 최대 4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 각각의 사용자별 패턴에 맞춰 추천 영상을 다르게 띄워주는 것과 비슷하다.





스마트 기술과 자동차가 만나 하나의 차를 완벽하게 자기 차처럼 4명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내 차'가 아닌 '내 차'인 듯한 차

현재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앱으로 예약·결제 후 차량에 탑승하면 '타인의 차'를 '내 차'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형 쏘나타에 적용된 기술처럼 자동차가 운행습관을 기억했다가, 타는 순간 시트·사이드미러·오디오·내비게이션·화면구성을 운전자에 맞춰 준다면 '내 차'처럼 느껴질 것이다.

처음 타보는 차종이라도 그간의 빅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체형을 판단해 예전에 타본 것처럼 조정해 줄 수 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매번 새로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자주 가는 곳', '지난 검색' 메뉴에서 갈 곳을 찾아 터치만 하면 된다. 오디오는 무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재생목록을 가져올 수 있다. 수년 내 모든 차량에 이런 시스템이 진화한 형태로 장착될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미숙련 운전자가 내는 사고다. 미성년자가 명의 도용으로 차량을 빌린 뒤 사고를 내는 뉴스가 종종 보도된다. 이 또한 충돌 방지 제어, 차선 이탈 방지 제어 등의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사고율을 줄여줄 것이다.

자율주행 시대 카셰어링 꽃필 것

넓은 의미에서 택시의 대체품인 '우버'와 같은 서비스도 카셰어링 범주에 들어간다. 우버 등의 서비스는 이미 기술적 조건이 완성되어 있지만, 사회적·제도적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택시 기사들의 생계 문제로 저항이 심해서다. 기존 법에서 허용한 카풀 서비스조차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범위가 축소됐다. 우버 등의 서비스에서 범죄 우려도 제기된다.

우버 서비스는 운전자의 노동이 투입되므로 순수한 의미의 카셰어링은 아니다. 카풀의 경우는 '기왕 가는 것 사람 한두 명 더 태운다'는 개념이므로 카셰어링에 가깝다.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된다면 카셰어링의 원래 목적에 가까워진다. 출근 후 운전자의 업무시간에 자동차를 무인운전으로 유료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된다면 카셰어링의 원래 목적에 가까워진다. 출근 후 운전자의 업무시간에 자동차를 무인운전으로 유료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 우종국 자동차 칼럼니스트

완벽한 비율 그리고 뛰어난 실용성

묘하다. 해치백 V60에서 지상고를 74㎜ 높이고, SUV XC60에서 전고를 155㎜ 낮췄을 뿐인데, 완벽한 비율을 갖춘 신형 'V60 크로스컨트리'가 탄생했다. 이전 세대 대비 150㎜ 늘어난 전장(4785㎜)과 100㎜ 늘어난 휠베이스(2875㎜) 덕에 앞뒤로 길쭉해졌다. 전고가 낮은 해치백이었다면 지나치게 길어 보였을 테고, 전고가 높은 XC60이었다면 뚱뚱해 보였을 것이다. 지금의 사이즈는 크로스컨트리만를 위한 완벽한 비율이다. 밤이 긴 나라 스웨덴 출신답게 헤드램프의 성능은 두말할 것 없고,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주간주행등도 존재감이 뚜렷하다. 대개 세단 베이스의 왜건형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한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세단의 리어램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로와 가로가 혼합된 크로스컨트리의 리어램프는 본래 이 차를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멋지다.

겉모습뿐 아니라 실용성 역시 뛰어나다. SUV와 유사한 수준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상고가 일반 세단·해치백보다 높아 비포장도로를 만나도 겁이 나지 않는다. 높아진 최저 지상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범퍼 레일 외에 하단에 보조 충돌 멤버를 추가해 타 차량과 충돌 시 전복 위험을 줄이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배려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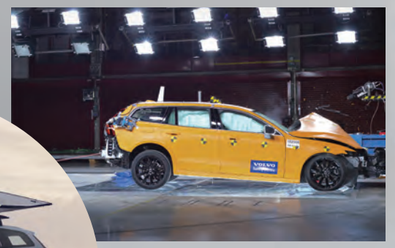
널찍하고 편리한 트렁크

트렁크 공간은 기본 529리터, 뒷좌석을 접을 경우 최대 1441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간단한 발동작만으로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는 핸즈프리 전동식 테일 게이트가 기본 적용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1959년 3점식 안전벨트를 최초 적용한 볼보의 안전 철학은 크로스컨트리에도 이어진다. SPA 플랫폼과 붕소 합강철 그리고 사람을 차량의 내·외부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인텔리세이프 등 최신의 안전 기술이 기본 제공된다.



라이프스타일 맞춤 액세서리

루프박스, 로드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등 별도 판매되는 크로스컨트리 전용 액세서리를 활용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온오프를 넘나드는 엔진

국내에는 최고출력 254마력/5500rpm, 최대토크 35.7kg·m/1500~4800rpm의 직렬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의 조합으로 출시된다. 전 트림에 스웨덴 할덱스 사의 5세대 AWD(All Wheel Driv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됐다.





'크로스오버'의 정석 볼보 신형 V60 크로스컨트리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최근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모델은 출퇴근은 물론 레저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프리미엄 중형 크로스오버다.

Volvo V60 Crosscountry

금호타이어가 귀띔하는 타이어 관리를 위한 3가지 TIPs!

세상의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닳고 변형되거나 파손되기도 한다. 타이어도 마찬가지.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의 안전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3가지 '꿀팁'을 꼭 머릿속에 새겨두자.

TIP 01





타이어에 실금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타이어가 오래됐거나, 오염 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타이어를 닦지 않고 오래 방치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자동차를 장시간 노출했을 경우 타이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세차를 자주 하거나, 화학성분이 강한 세정제 및 타이어 왁스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도 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이어 휠 림 부근에서 발생한 실금이나 잔주름은 오래된 타이어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오래된 타이어가 아니더라도 휠 세척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부분에 갈라짐이 생길 수 있죠. 이 부분의 실금은 주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졌다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어를 장착한 채로 과속방지턱을 지나거나 급커브를 하면 자동차의 흔들림이 예전보다 심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휠 림 부근에 실금이 생긴 타이어는 지금 당장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바닥(트레드) 부분에 크랙이 발생했다면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 공기압 체크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면과 맞닿아 있는 타이어 바닥은 타이어의 주요 기술력이 집중돼 있는 부분입니다. 트레드 패턴에 따라 마찰력이나 배수 능력이 높아져 제동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트레드에 실금이나 갈라짐이 생겼다면 타이어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이어 성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전자라면 새 타이어로 교체할 것을 권합니다.

가장 잘 살펴봐야 할 곳은 타이어의 옆면(사이드월)입니다. 사이드월은 주행하는 동안 차량의 무게에 의해 둥그랗게 구부러졌다가 직선으로 펴지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사이드월은 자동차의 승차감을 높이고, 타이어의 그립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사이드월에 갈라짐이 생겼다면 타이어 펑크나 파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발견 즉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TIP 02



타이어가 얼룩덜룩해지거나, 누렇게 변색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갈변의 원인을 '타이어 노화방지제의 화학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타이어 노화방지제는 열이나 오존 등에 의해 타이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방지제가 날씨와 직사광선 등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타이어가 누렇게 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타이어의 갈변은 주행 성능이나 안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누렇게 변했다는 건 노화방지제가 타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변 현상 때문에 타이어가 낡아 보여 미관상 좋지 않다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때 너무 강한 약품을 사용하면 노화방지제까지 함께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물과 브러시로만 타이어를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타이어 노후화나 관리 소홀 때문에 변색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를 구매한 지 3~5년이 지난 경우라면, 타이어 노화 때문에 갈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마모도 많이 진행됐을 테니 이때쯤에는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TIP 03



스탠딩웨이브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에 물결처럼 주름이 접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타이어 내부의 부족한 공기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접지면에서 타이어의 변형이 일어나고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복원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딩웨이브가 발생하는 이유는 타이어가 지탱하는 무게가 너무 높거나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스탠딩웨이브 현상이 생기면 타이어 내부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탠딩웨이브 현상은 고속주행 시 발생하기 때문에 차축이 흔들리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어 더욱 위험합니다. 스탠딩웨이브 현상은 공기압 부족과 과도한 하중이 주된 원인입니다. 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스탠딩웨이브 현상은 150km/h 전후의 고속주행 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입니다.

KUMHO TIRE SNS

금호타이어가 운영하는 SNS에서는 타이어 및 자동차와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SNS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hoTire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

Thedrtire
블로그
blog.kumhotire.co.kr/

글. 서동철 사진. 김남국, 조승민<STUDIO b612>

CJ SUPERRACE CHAMPIONSHIP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R1

4만 2,153명! 사상 최다 관람객으로 기록을 갈아치우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우리나라 최고 인기,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이틀간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개막전 경기에 4만 2,153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사상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마술쇼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맞춤 이벤트였다.

◀ 그리드워크 행사에는 2,0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그리드워크에 참가할 수 있는 현장 판매 티켓까지 모두 매진됐다고.

▼ 기존 5,000여석에 더해 출발선 부근에 추가로 마련한 관중석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개막전 대비 70% 증가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모터스포츠 마니아들은 물론,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 단위로 찾은 방문객들도 많았다. 개막전 예선이 펼쳐진 27일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1만 2,389명으로 지난해(9,467명)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28일 결승전에는 다시 한 번 예상을 뛰어넘어 2만 9,764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이로써 이틀간 개막전을 보기 위해 스피드웨이를 방문한 관중은 지난해(2만 4,697명) 대비 70% 이상 늘어난 4만 2,153명에 달했다. 역대 모든 라운드를 통틀어 최다 관람객수를 기록한 것이다. 기존 5,000여석에 더해 출발선 부근에 추가로 마련한 관중석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결승전 그리드워크 행사에는 2,0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슈퍼카들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 첨단 사양의 모션 시뮬레이터를 통한 '슈퍼레이스 버츄얼 챔피언십'은 실제로 레이스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 슈퍼레이스 드라이빙 스쿨, 슈퍼레이스 DIY ZONE 등 올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는 아이들이 즐길 만한 이벤트가 많았다.



볼거리·먹거리에 다양한 이벤트까지

올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이 이렇듯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것은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형식으로 대회를 개최한 덕분이다. 모터스포츠 경기에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결합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확장시킨 것이다. 특히 올해는 놀이공원을 방불케 하는 행사 운영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에게 운전의 재미와 안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슈퍼레이스 드라이빙 스쿨', 레이스카 모양의 방향제에 데칼을 직접 칠해보는 '슈퍼레이스 DIY ZONE', 레이싱 시뮬레이터로 실제 레이서가 된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버츄얼 챔피언십',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슈퍼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슈퍼카 전시' 등은 특히 인기가 높았다. 이외에도 메인 무대에서의 마술쇼, 인디 밴드의 버스킹 공연, 다양한 먹거리들로 가득한 푸드 트럭 등 오감이 즐거운 행사들로 관람객들을 이끌었다.







▲ 금호타이어의 캐릭터인 또로와 로로 그리고 레이싱 모델들과의 사진 촬영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 마제스티9, 엑스타, 솔루스, 윈터크래프트 등이 적힌 룰렛을 돌려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는 금호타이어의 제품과 브랜드를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기회였다.



◀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멀티펜, 휴대용 물티슈, 미세먼지 마스크 등 경품을 증정해 모터스포츠 관람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 금호타이어 룰렛 이벤트에는 수십여 명이 줄을 서면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비롯한 다채로운 경품행사

컨벤션 존에 마련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경품 및 전시 행사들은 수십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설 정도였다. 금호타이어가 실시한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금호타이어의 귀여운 캐릭터인 또로와 로로는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기였다. 너도나도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바람에 또로와 로로는 쉴 틈이 없었다고. 마제스티9, 엑스타, 솔루스, 윈터크래프트 등 금호타이어의 대표 제품 및 라인업이 적힌 룰렛을 돌리면 멀티펜, 휴대용 물티슈,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제공한 경품 이벤트에도 긴 줄이 늘어섰다.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TV' 유튜브 채널 오픈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실시했다. 엑스타 TV의 2019 TV CF 광고 영상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응원 댓글을 다는 미션을 수행하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증정한 것. 이외에도 완성차 브랜드, 카셰어링, 휠 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손에는 풍성한 선물이 가득했다.

6000 클래스 등 골라보는 재미 쏠쏠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인 ASA 6000 클래스는 단연 최고의 짜릿함을 선사한다. 첫 한 바퀴를 돌며 예열을 마친 레이스 카들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속해 굉음을 내며 출발하는 롤링스타트의 순간은 가슴을 쿵쾅거리게 한다. 6000 클래스는 아시아 유일의 스톡카(Stock-Car) 시리즈이며, 436마력에 최고속도는 300km/h를 웃돈다. 스톡카란 오직 레이싱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경주차를 뜻한다. 이외에도 올해 슈퍼레이스에는 GT 클래스(GT1·GT2), BMW M 클래스 그리고 미니(MINI) 챌린지 코리아(쿠퍼 JCW·쿠퍼 S·쿠퍼 레이디)와 레디컬 컵 아시아가 추가돼 관람객들에게 골라보는 쏠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GT 클래스에는 양산차를 기반으로 한 개조 차량들이 출전하며, BMW M 클래스는 BMW사의 고성능 스포츠카 라인업인 M4(F82) Coupe 모델이 출전하는 세계 유일의 원메이크 레이스이다. 레디컬 컵 아시아는 레이스 카의 역동성에 조작의 편리함을 더해 개발된 차량으로 경기를 펼치며, 미니 챌린지 코리아는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한 미니 차량들이 참가하는 경기다.

▲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는 최상위 클래스인 ASA 6000 클래스 외에도 다양한 차량들이 등장하는 경기로 눈길을 끈다.

▶ 양산차를 기반으로 한 개조 차량들이 출전하는 GT클래스는 제네시스 쿠페, 벨로스터, 크루즈 등 다양한 차종으로 재미를 더한다.

▼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인 ASA 6000 클래스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글 서동철 사진. 김남형<STUDIO b612>

26년 영업 노하우로 고객 감동 타이어프로 대전점

잘 되는 대리점은 분명 이유가 있다. 좋은 위치, 최신 장비, 숙련된 인력, 편안한 휴식 공간, 친절, 신뢰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타이어프로 대전점의 허정환 대표는 '고객 감동'이라고 말한다. 26년 간 영업 일선에서 뛰었던 허정환 '대표사원'이 강조하는 고객 감동이란 무엇일까?



새롭게 태어난 타이어프로 대전점

경부고속도로 대전IC에서 빠져 나와 동부네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곧 타이어프로 대전점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큰 사거리에 위치한 데다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어 다른 건물들의 간섭이 없다 보니 안 그래도 높은 간판이 멀리서도 잘 보인다. 게다가 사거리를 이루는 한밭대로는 대전의 핵심 도로 중 하나다. 유성구에서 동구까지 대도시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더할 나위 없는 지리적 강점을 지닌 셈이다. 이곳에서 만난 허정환 대표사원은 힘이 넘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명함에 대표가 아니라 대표사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다른 직원과 다름없이 고객을 맞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잘 보여준다.

"저는 1993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순천지점으로 첫 발령을 받아 순천/진주/전주/인천/강서/광주/대전지점장 그리고 영남지역장/충호남지역장 등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을 무대 삼아 약 26년 동안 영업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지난해 퇴사해 타이어프로 대전점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현장 노하우를 총동원하는 것이죠. 먼저 사무실 내 타이어와 휠 전시대를 치우고 고객 휴식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꾸몄습니다. 앞마당에 컨테이너를 놓아 직원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꾼 것이지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다

허정환 대표사원이 영업 현장에서 뛰면서 지켜본 우수 대리점들의 특징은 바로 '고객 감동을 통한 철저한 고객 데이터 관리'이다. 대리점의 하드웨어인 공간을 바꾸는 동시에 시스템과 서비스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전 직원에게 블루투스 무전기 헤드셋을 지급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30년 경력의 타이어 전문가인 박병문 실장과 20년 자동차 정비기술자인 이현철 부장을 포진해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조미숙 매니저의 친절한 상담도 빼놓을 수 없다.

"대전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회사 투자점인 타이어프로 대전점은 이미 장점이 많은 대리점입니다. 그렇다고 안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인 공간을 변화시키고 전문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끌어올린 다음에는 고객 관리와 고객 감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기압 체크, 타이어 위치교환, 오일교환 주기에 맞춰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고객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확대하고, 물티슈를 비롯해 고급 타월, 우산 등 판촉물을 항시 구비해 고객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대전봉사체험교실, 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사회 기부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소비가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뿌듯함도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크고 작은 감동들이 쌓여 신뢰와 입소문으로 타이어프로 대전점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Shop Info

찾아가기 대전광역시의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인 한밭대로가 동쪽 끝에서 계족로와 만나는 중리네거리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 대전IC에서 찾아간다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직진, 동부네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약 1.2km 달리면 중리네거리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20
문의 042-627-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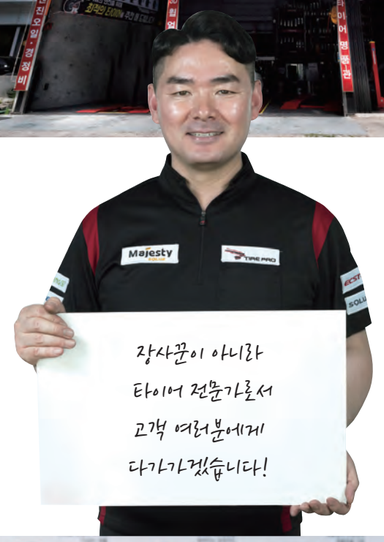
글 서동철 사진. 김남형<STUDIO b612>





금호타이어와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타이어프로 진해구청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경쟁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해일 대표는 지난해 봄 타이어프로 간판을 달았다. 금호타이어와 함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이다. 약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매출은 평년 대비 늘어났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이다.





진해에서 시작된 '타이어 명품관'

정해일 대표가 진해를 찾아온 것은 지난 2007년의 일이다. 당시 진해에는 타이어 전문점이 드물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간판에는 '타이어 명품관'이라 적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좋은 타이어를 좋은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고가 없는 낯선 도시였기에 성실과 친절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었다.

"새벽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고객을 맞이했고, 설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곤 일요일에도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손님을 대하고자 했습니다. 타이어 2본에 문제가 있으면 2본만 팔아야지 4본을 팔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타이어 상태, 고객의 운전 스타일 등을 파악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상품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맞춤 타이어로 교체하고 휠 얼라인먼트를 조정하고 나면 저희 매장만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드립니다. 이 스티커는 지속적인 A/S를 의미합니다. 한 번 유료로 휠 얼라인먼트를 보고 나면, 이후 폐차할 때까지 차량에 충격이 있거나 부속품을 교환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맞춰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타이어프로 간판으로 새로운 시작

지난해 초 리모델링과 확장을 실시한 매장은 작업 공간과 휴게 공간 모두 매력적이다.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어난 리프트는 대기 없는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 가운데 2곳에서 휠 얼라인먼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휴게 공간은 여느 고급스러운 카페를 떠올리게 한다. 널찍한 공간에 통창이 나 있어 바깥 풍경과 작업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커피 머신, 얼음 정수기 등을 비치해 쾌적하게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물론 가장 큰 변화는 타이어프로로 간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매장 옆에 있던 카센터 자리까지 확장하면서 공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일 교환과 경정비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휴게 공간은 기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해졌죠. 리모델링을 하면서 2010년부터 해오던 기존 브랜드를 버리고 타이어프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각오와 함께였죠. 초기에는 불안함이 없지 않았지만, 금세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고급 제품들은 물론 중간 라인업이 탄탄해 고객들에게 맞춤 타이어를 제공하기에 수월했고, 무엇보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과 확장 그리고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통해 1년만에 평년 대비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금호타이어와 함께 진해의 타이어 명품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Shop Info

찾아가기 창원시 진해구를 'ㄱ'자로 가로지르는 진해대로변에 위치한다. 시내의 창원지방법원과 진해경찰서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진해구청을 끼고 있는 풍호사거리에서 타이어프로 진해구청점을 만날 수 있다.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01
문의 055-544-7667



KUMHO TIRE NEWS

01

신규 기업브랜드 TV 광고 런칭

'균형'의 가치를 간결한 메시지와 함께 빠르고 임팩트 있게 연출



금호타이어가 신규 기업브랜드 TV 광고 '균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편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광고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6년 선보인 '더 안전한 타이어' 시리즈 광고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광고이며,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들과 고객들에게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제작됐다. 지난 4월부터 TV와 온라인 미디어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이번 광고는 브랜드 슬로건인 'Better, All-Ways'를 기반으로 금호타이어의 강점이자 추구하는 바인 "균형"의 가치를 간결한 메시지와 함께 빠르고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 본 광고 영상에서는 다양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빠르게 바뀌는 장면과 함께 모든 운전에는 주행성, 정숙성, 제동력 등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균형이 있다는 의미를 자막으로 표현했다. 이어 각 특성을 담은 스파이더 차트 한 중간에 "균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라는 메인 카피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성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기업브랜드 광고를 통해 고객들과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서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균형의 가치를 새롭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광고가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의 신호탄이 되어 균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재도약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현대자동차 쏠라티 리무진에 OE 공급

LCV(경상용차)용 20인치 45편평비 규격 세계 최초 개발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미니버스 쏠라티(Solati) 리무진에 금호타이어의 20인치 규격 OE(신차용 타이어)가 단독 공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부터 쏠라티 리무진에 기존 포트란 KC53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신규 공급 중이다. 포트란 KC53은 금호타이어의 LCV(경상용차) 전용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마일리지 향상 및 이상마모 방지, 내구성 향상, 핸들링 등의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 리무진에 장착되는 기존 주 규격인 16인치 타이어가 차체에 비해 작다는 판단과 앞으로 20인치 규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각 타이어사에 신규 개발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타사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에 난색을 표했고, 금호타이어가 단독으로 개발에 참여해 최종 성공했다.

특히 LCV 타이어의 경우 고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45편평비(저편평비)를 적용하면서도 기존의 승차감과 연비를 동등하게 유지시키는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고강도 컴파운드 및 카카스 적용으로 내구성능을 강화하는 한편, 패턴 내마모 설계 및 숄더부 강성 강화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저편평비의 20인치 LCV 규격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03

타이어프로 교체대행서비스 실시



타이어 전문 특화유통점인 금호타이어의 '타이어프로(Tire Pro)'가 지난 5월부터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교체대행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교체대행서비스는 고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기사가 방문해 차량을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주는 타이어프로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유 차량에 맞는 상품, 원하는 매장과 시간, 차량 수령 및 회수 장소를 선택해 결제를 완료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의 교체대행서비스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www.tirepro.co.kr)나 타이어프로 고객센터(1833-39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토트넘과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금호타이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영국의 명문 축구구단 토트넘 홋스퍼가 지난 4월 신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개장함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스포츠마케팅 활동도 더욱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지난 4월 4일 새구장 1호골을 쏘아 올려 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및 컵 대회 경기 중 LED 광고, A-보드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브랜드를 노출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인근부터 폭풍 같은 드리블로 이번 시즌 리그 1호 골을 기록할 때 마침 금호타이어의 A-보드 광고가 송출 중이어서 이 장면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면서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

05

중국·호주 모터스포츠 공식 후원 연장



올해 '중국 포뮬러4 챔피언십'과 '호주 Super 3 Series' 대회의 공식 레이싱 타이어를 금호타이어가 독점 공급한다. '중국 포뮬러4 챔피언십'은 중국 내 최대 포뮬러 대회로 상위대회로 진출을 꿈꾸는 레이싱 선수들의 교두보이다. '호주 Super 3 Series'는 2008년 금호타이어가 처음 독점 공급을 시작한 대회로 지난해까지 'V8 Touring Car Series'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호주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Supercar Series'와 함께하게 되어 'Super 3 Serie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호타이어는 이 두 대회에 레이싱 전용 타이어인 '엑스타(ECSTA) S700, W700'를 지속적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하여 만들어진 레이싱 타이어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탁월한 접지력과 고속주행 시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06

식목일 맞아 서울시와 '탄소 상쇄 숲' 조성



금호타이어가 식목일에 앞서 지난 4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에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금호타이어 탄소 상쇄 숲' 조성 행사를 가졌다. 금호타이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대문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약 3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금호타이어 임직원들과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또한 지난해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이어 인근 홍은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탄소 상쇄 숲 조성 행사를 통해 북한산 자락 6,000㎡ 면적에 소나무, 상수리나무, 청단풍나무 등을 심었다. 이 나무들은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름 및 꿈과 소망을 적은 표찰을 걸고 앞으로 30년간 서울시의 관리 및 보호를 받는다.

HOT ISSUE

‘엑스타 TV’ 유튜브 채널 리뉴얼

타이어 전문 지식 등 고객 눈높이 맞게 전달하며 소통 강화









금호타이어가 유튜브 채널인 ‘엑스타(ECSTA) TV’를 개설하며 온라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소통 확대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0년 국내업계 최초로 유튜브를 개설했으나, 최근 유튜브가 국내 이용자수만 3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정보 유통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름에 따라 기존 공식 채널의 콘텐츠를 다양화 및 전면 재구성해 리뉴얼 오픈했다.

엑스타(ECSTA) TV는 금호타이어 광고 및 엑스타레이싱팀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자동차에 관련된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마다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RGB STANCE(한용덕)가 직접 타이어와 관련된 정보와 점검 요령 및 안전주행을 위한 운전자 팁 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캐릭터인 또로를 활용한 ‘또로 브이로그(V-LOG)’ 콘텐츠는 CGV 영화관 속 귀여운 또로 캐릭터가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냄으로써 누구나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단순히 기업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유용한 자동차 관련 팁이나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품 관련 기획기사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콘텐츠 및 이벤트를 강화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해 왔다”며, “이번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통해 앞으로 국내외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고객이 금호타이어 기술의 우수성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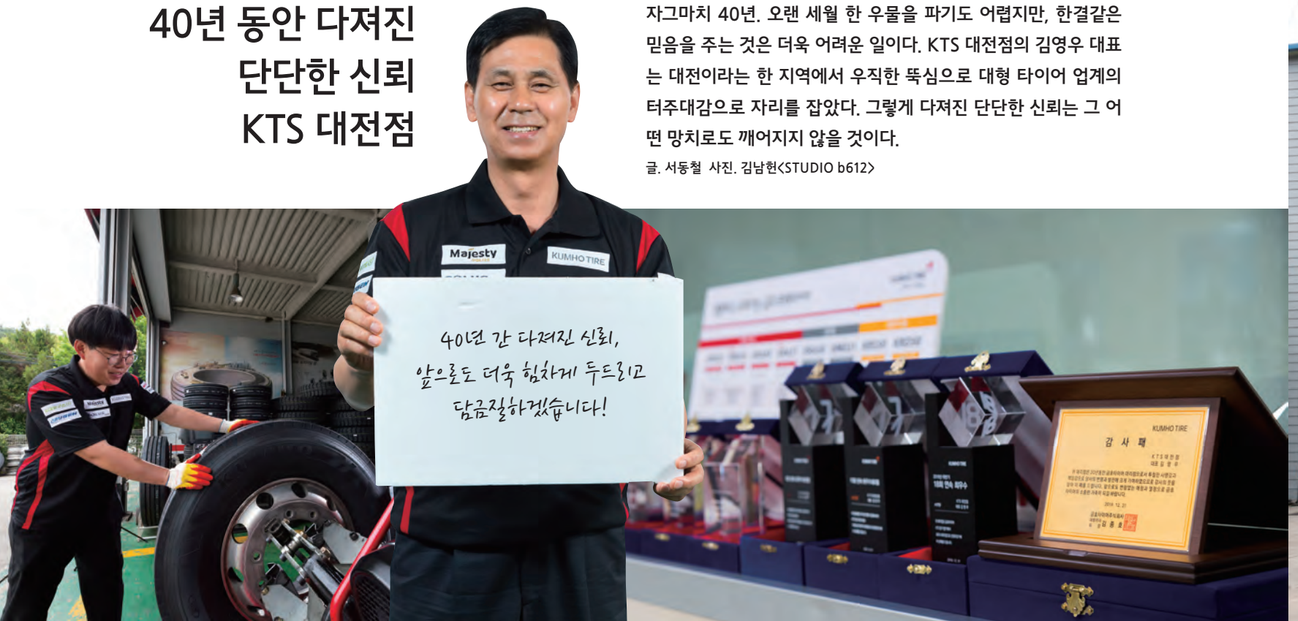
KTS
트럭/버스 타이어도 역시 금호타이어입니다



40년 동안 다져진 단단한 신뢰 KTS 대전점

자그마치 40년. 오랜 세월 한 우물을 파기도 어렵지만, 한결같은 믿음을 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KTS 대전점의 김영우 대표는 대전이라는 한 지역에서 우직한 뚝심으로 대형 타이어 업계의 터주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다져진 단단한 신뢰는 그 어떤 망치로도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글. 서동철 사진. 김남헌<STUDIO b612>



쉼 없이 직접 발로 뛰었던 영업

대전광역시 서쪽 외곽의 신탄진로를 달리다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주유소부터 시작해 완성차 업체들의 서비스센터,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등이 즐비하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KTS 대전점은 바로 이곳에 금호타이어 트레이닝센터 및 고객서비스센터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2층 사무실로 들어서니 점잖은 목소리의 김영우 대표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악수를 내미는 손에서는 오랜 세월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왔던 사람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사무실 한쪽에는 18회 연속 최우수대리점 상패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최우수대리점 상패들이 가득하고, 30년 동안의 헌신을 기념하는 감사패가 세월의 깊이를 웅변하는 듯하다.

"1978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했어요. 대전 지역의 시내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트럭, 화물 등 대형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1988년 퇴사하고 삼성동에서 대리점을 오픈해 운영하다가 201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회사에서의 10년 그리고 대리점 운영 30년을 더하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형 타이어라는 한 우물을 파온 셈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한눈팔지 않고 달려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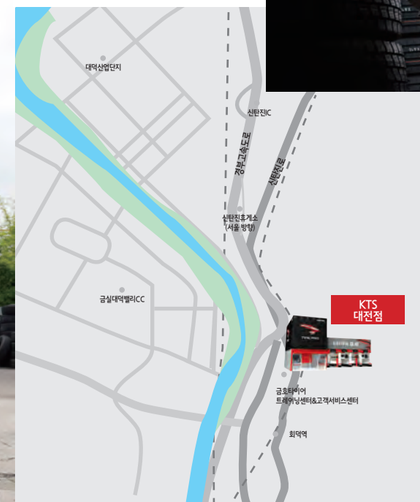
회사 투자점인 KTS 대전점은 대전을 대표하는 대형 타이어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차량 10여대가 들고날 수 있을 만큼 널찍한 앞마당과 에어 주입 안전망까지 갖추고 있는 최신 장비 등으로 대전 대형차들의 A/S도 전담하고 있다. 대전의 시내버스 15개 업체, 고속버스 2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16개 업체에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한 지역의 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95% 가까운 점유율을 갖춘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대전은 경쟁사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대형 타이어는 오랜 세월 이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외형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금액도 커서 감당하기 쉽지 않죠. 저는 40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다녔습니다. 20~30년이 넘는 거래처가 많은 이유죠. 해당 업체의 실무자부터 대표까지 제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직접 영업 관리를 하며 정보를 습득해 발 빠르게 대처했기에 40년을 버텨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래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인간적인 믿음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다져진 탄탄한 신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Shop Info

찾아가기 대전광역시 둥쪽 끄트머리를 남북으로 잇는 신탄진로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로 빠져나와 덤바위삼거리에서 우회전, 신탄진로를 따라 약 4km 남하하면 오른편으로 KTS 대전점이 보인다.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37
문의 042-625-0815





CARGO

뛰어난 내구성, 주행 안정성, 마일리지가 우수한 카고/트랙터용 타이어

중 · 장거리 트랙터 / 25톤 카고 전륜용

KXS10



- 유럽형 타이어 : 수입 고급 상용차용
- 가성비 우수, 고마일리지 제품
- 고강도 20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 315/80 R22.5	20	튜브레스	130	4,125kg	3,750kg	156/150L

▲ 사용자 과실보상 보증 제도 적용 규격

중 · 장거리 트랙터 / 중형카고 후륜용

KXD10



- 가성비 우수, 친환경 트랙터용 타이어
- 우수한 연비 성능
- 고강도 20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315/80 R22.5	20	튜브레스	130	4,125kg	3,750kg	156/150L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L
24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750kg	2,650kg	144/142J

중 · 장거리 트랙터 / 대형카고 전륜용

KRS55



-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 특수 컴파운드 적용으로 고(高)마일리지 실현
- 고속주행 안정성 및 핸들링 성능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L
▲ 295/80 R22.5	18	튜브레스	125	3,750kg	3,250kg	154/149L

▲ 사용자 과실보상 보증 제도 적용 규격

트랙터 / 대형카고 후륜용

KRD55



-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 신개발 고무 적용
- 센터부 블록 강성 증가 / 굴곡 사이프 적용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L
▲ 295/80 R22.5	18	튜브레스	125	3,750kg	3,250kg	154/149L

▲ 사용자 과실보상 보증 제도 적용 규격

카고 후륜용

KRD50



- 원단 내구성 향상
- 제동력 및 구동력 향상
- 와이드 벨트 적용으로 균일마모 유지 및 마일리지 향상
- 횡방향 5줄의 블록 패턴설계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315/80 R22.5	20	튜브레스	130	4,125kg	3,750kg	156/150L
315/70 R22.5	16	튜브레스	130	3,750kg	3,350kg	154/150L
26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800kg	2,650kg	144/142J
▲ 24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750kg	2,650kg	144/142J
225/75 R17.5	12	튜브레스	105	1,850kg	1,750kg	129/127M
215/75 R17.5	12	튜브레스	105	1,700kg	1,600kg	126/124M
205/75 R17.5	12	튜브레스	110	1,600kg	1,500kg	124/122M
	10	튜브레스	95	1,500kg	1,400kg	122/120M

▲ 사용자 과실보상 보증 제도 적용 규격

중형카고 전륜용

KRS50



- 원단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 특수 컴파운드 적용으로 고(高) 마일리지 실현
- 고속주행 안정성 및 핸들링 성능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 26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800kg	2,650kg	144/142J
▲ 24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750kg	2,650kg	144/142J
225/75 R17.5	14	튜브레스	115	1,950kg	1,850kg	131/129L
225/75 R17.5	12	튜브레스	105	1,850kg	1,750kg	129/127M
215/75 R17.5	12	튜브레스	105	1,700kg	1,600kg	126/124M
205/75 R17.5	12	튜브레스	110	1,600kg	1,500kg	124/122M
	10	튜브레스	95	1,500kg	1,400kg	122/120M

▲ 사용자 과실보상 보증 제도 적용 규격

중 · 단거리 카고 전 · 후륜용

KRA50



- 국내 업계 최초 12 R22.5 및 295/80 R22.5 규격에 18PR 적용
- 신개발 고무 적용으로 마일리지 및 내구성 향상
- 숄더부 이상 마모 방지와 주행성능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L
11 R22.5	16	튜브레스	120	3,000kg	2,725kg	148/145L
315/80 R22.5	20	튜브레스	130	4,125kg	3,750kg	156/150L
▲ 305/85 R22.5	18	튜브레스	125	3,650kg	3,250kg	153/149L
▲ 295/80 R22.5	18	튜브레스	125	3,750kg	3,250kg	154/149L
▲ 26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800kg	2,650kg	144/142J
▲ 24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750Kg	2,650Kg	144/142J
225/75 R17.5	12	튜브레스	105	1,850Kg	1,750Kg	129/127M
205/75 R17.5	12	튜브레스	110	1,600Kg	1,500Kg	124/122M
195/85 R16	12	튜브레스	87	1,180Kg	1,120Kg	114/112L

▲ 사용자 과실보상 보증 제도 적용 규격

DUMP

포장도로, 비포장도로에서 탁월한 주행성능 및 견인력을 발휘하는 덤프용 타이어

중 · 단거리 대형덤프 전륜용

KRA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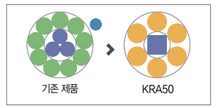


- 마일리지 및 내구성 향상
- 신개발 고무 적용으로 컷 & 칩핑, 뜸김 방지
- 숄더부 이상 마모 방지와 주행성능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385/65 R22.5	24	튜브레스	135	5,000kg	164K
365/70 R22.5	20	튜브레스	135	4,750kg	162K



- ICOS기술을 적용한 최적 설계로 고강도 제품 구현 (20, 22, 24PR)



- 고무 침투도가 우수한 4벨트 코드 적용
- 마모 중 · 후반 돌끼임에 의한 손상 확산 최소화
- 타이어 마모 후반 마일리지 향상

중 · 장거리 대형덤프 전륜용

KLS03



- 새로운 트레드컴파운드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 접지 형상 최적화로 마모 후반 내구성 향상
- ICOS기술을 적용한 최적 설계로 고강도 제품을 구현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385/65 R22.5	24	튜브레스	135	5,000kg	164K

중 · 단거리 대형덤프 전륜용

KRS50



- 원단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 특수 컴파운드 적용으로 고(高) 마일리지 실현
- 고속주행 안정성 및 핸들링 성능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385/65 R22.5	24	튜브레스	135	5,000kg	164K

15톤 이하 덤프용 / 레미콘용 전 · 후륜용

KMA22



- 신개발 합성고무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 넓은 섹션폭 적용으로 주행 안정성 향상
- 고강도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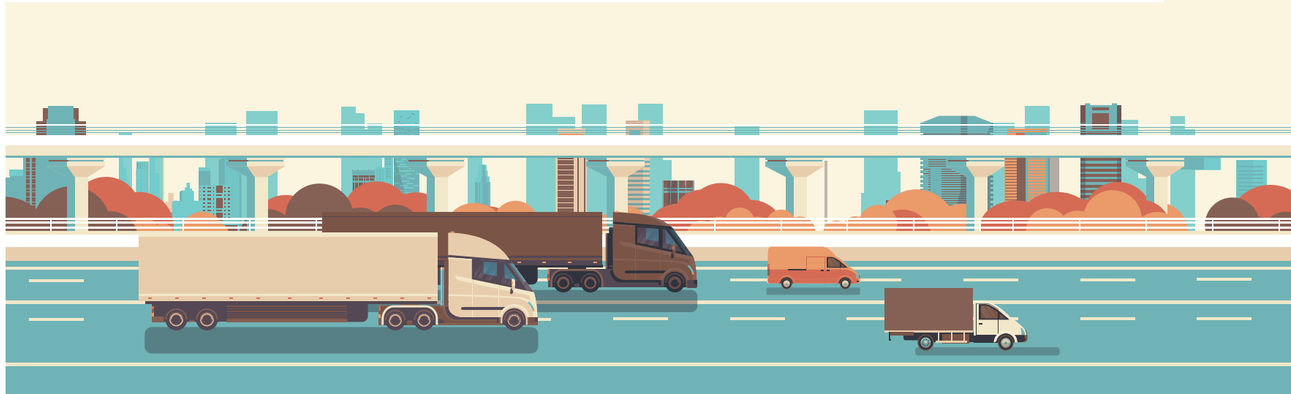
[포장 도로용] 덤프 후륜용

KMD22



- 신개발 합성고무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 넓은 섹션폭 적용으로 주행 안정성 향상
- 고강도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 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 륜	복 륜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K



트럭·버스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평택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청도 (부산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됐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트럭, 버스 운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다. 또한 방문 고객들에게 타이어 안전관리 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와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RA50', 'KRS55', 'KXA10'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KRA50와 KRS55는 대형카고와 덤프용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형상, 구조, 재료 등을 최적화했으며, 내구성을 강화하고 마모를 최소화했다.

문형종 금호타이어 CS팀장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대형 차량의 안전 운전은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금호타이어가 마련한 이번 고속도로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매년 트럭·버스용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타이어 안전 관련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 · 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되고 화물 · 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화물 · 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도 강화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 · 소형 경유차 배출규제 강화된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2021년부터는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톤 미만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기존 '0.12g/km'에서 '0.114kg/km'로 높아진다. 이는 예정된 강화규제보다 5% 높아진 수준으로 유럽연합의 규정과 동일하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강화된다. 기존 '0.96g/kWh'에서 '0.75g/kWh'까지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반면, 경·소형급이 주를 이루는 LPG(액화석유가스) 승합·화물차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LPG 상용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LPG 상용차는 2022년 출고 차량까지 현재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대형·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길어진다. 배출가스의 경우 기존 '2년 또는 16만km'에서 '6년 또는 30만km(대형)', '7년 또는 70만km(초대형)'로 늘고, 휘발유와 가스 차종을 보증한다. 배출가스 부품의 경우 기존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까지 확대되고, 전 유종 차량을 보증한다.



기술력, 장비, 서비스를 모두 갖추다

균형의 프로, 타이어 프로

전문 기술력 체계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하이엔드 장비 해외 첨단 장비 구축

최상의 서비스 체계화된 서비스 매뉴얼